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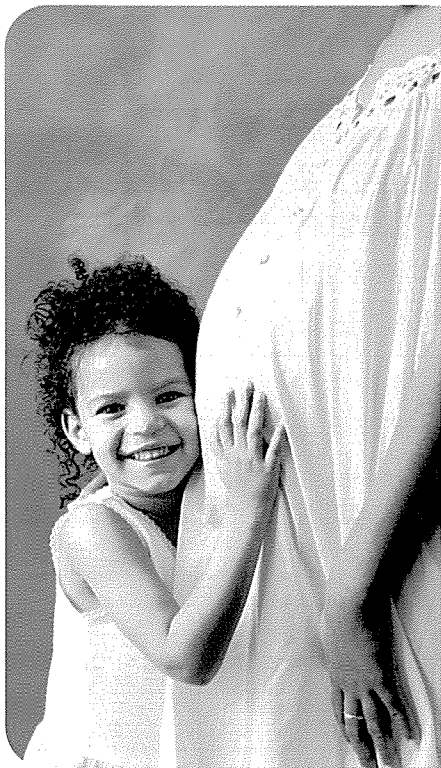
상습 음주자 간암 위험 8배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상을 사흘 이상 마시는 상습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간암에 걸릴 위험이 8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간암 검진 수검자 7만2,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술을 자주 많이 마실수록, 흡연량이 많거나 흡연 기간이 길수록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 이상, 술자리마다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시는 상습 음주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8.2배 높았고, 상습 음주자가 남성일 때에는 10.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과거 병력 중 B형 간염 보균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간암에 걸릴 가능성이 5.4배, 가족 병력 중 간장 질환자가 있으면 3.15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1.2배 높았다.

〈매일경제 2006. 4. 23〉



임신 간격 18개월 이상 돼야 건강한 아이 낳아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면 임신 간격을 최소한 18개월 이상, 5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콜롬비아의 아쿠시틴 콘테 아구텔로 박사는 1천 100만 건 이상의 임신 사례를 다룬 67건의 각 국 연구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며 미국 의학협회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

아구텔로 박사는 임신 간격이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아구텔로 박사는 임신 간격이 18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 짧아질 때마다 조산 가능성이 1.9% 증가했고, 임신 간격이 5년을 넘을 경우에도 한달 늦어질 때마다 조산 가능성은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 YTN 2006. 4. 19〉

어린이 비만, 운동 부족 때문 아니다

어린이 비만은 과식 때문이지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정부가 주내 90개 공립학교 학생 5천4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등 활동 부족으로 살이 찌고 있다는 도시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같이 밝혔다.

조사를 담당했던 시드니 대학 과체중 비만 연구소의 마이클 부스 박사는 어린이들이 오히려 지난 90년대 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나 체중은 더 불어나고 있다며 어린이 비만의 주범은 과식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부스 박사는 패스트푸드와 스낵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와 장난감 끼워 팔기를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한된 영양가를 가진 고칼로리 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스포츠 행사 스폰서 행위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스 박사는 특히 그 같은 회사들의 어린이 스포츠 스폰서 행위는 건강한 생활방식과 관련해 어린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청량음료의 과잉소비가 비만을 부채질 하고 있고, 남자 어린이들의 체중이 여자 어린이들 보다 크게 앞서고 있는 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스 박사는 시드니 웨스트미드 아동병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주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 행사의 스폰서들을 일일이 조사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는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된 어린이들은 지난 97년 남녀 공히 20% 정도였으나 2004년에는 여자 어린이는 23%, 남자 어린이는 26%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6. 4. 22〉

